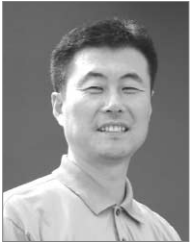


2009년도 육계산업 전망

2009년도 종계 · 부화업 전망



이 상 배 이사
(주)삼화육종

옛날 속담에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 (당구풍월:堂狗風月)라는 말이 있다. 삼 년보다 훨씬 긴 십 수년을 부화 · 종계업계에서 종사한 필자는 아직도 다음해 경기를 점치는 재주를 겸비하지 못하고 있어 풍월은커녕 글자도 모르는 격이라고나 해야 할까.

해마다 연말이 되면 거래 관계에 있는 업계 분들이 종종 “내년 닭 값과 병아리 값, 즉 양계(육계산업) 경기가 어떨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원종계(GP) 농장에서 근무하니 다 알 것 아닙니까?”라는 곤혹스러운 질문을 받을 때가 있다. 그때마다 “그것을 다 알면 내가 (양계)사업하지요, 하느님도 모르는 것이 닭 값과 병아리 값이러는데...”라고 농담 삼아 대답하곤 한다.

최근 몇 년간 새해의 종계 · 부화업 전망에 대해 의견을 달라는 부탁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지면을 통해 전망을 내놓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이럴 때 늘 통계에 기초한 의견을 정리해 내놓았다.

그러나 금년의 전망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미국 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양계의 모든 분

야에 예측하기 힘든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단순한 자료통계에 기인한 것만으로는 전망하기가 더욱 곤란한 것 같다.

1. 사료값 하락의 영향

세계적인 경기불황 여파로 어느 나라나 국민소득의 감소는 결국 축산물 소비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사료원료의 수출감소와 더불어 오일가격의 급락으로 미국 등 곡물생산국에서 그 동안 바이오 에탄올 생산에 투입되었던 옥수수는 경제성이 맞지 않게 되자 축산용 사료로 판매해야 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여 금년은 작년 대비 사료원료 가격하락으로 인한 사료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환율이 낮아지지 않고 있어 사료가격 인하는 환율 하락 시점까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료가격이 인하되면 닭고기의 생산원가 인하로 이어져 생산원가 부담 때문에 자취를 감추었던 개인 닭 사육업자(종계 · 부화업자, 유사인티)의 출현이 또 다시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지난해의 경험으로 볼 때 생산원가의 상승은 개인 닭 사육을 포기하도록 했고 계열화에 편승을 강요하여 계열화 비율이 정점을 이룸으로써 그 동안 팽창되었던 농가숫자는 남아 돌아 갈 곳 없는 농가들은 업종을 바꾸든지

2009년도 증계·부화업 전망

아니면 업을 포기하든지 하는 구조조정을 강요당했었다.

이들이 또다시 모험의 길을 택하여 병아리 수요증가와 더불어 닭고기의 생산량 증가로 이어지게 할 가능성이 있어 육계업의 변수로 작용할 요인이 되고 있다.

2. 국제 원유가격 하락

원유가격 상승이 정점을 이루었던 작년 7월의 경우 배럴당 150달러에 육박했으나 현재는 약 40%에도 못 미치는 40~50달러 선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사료가격과 더불어 환율이 소비자가격을 결정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오일가격 역시 닭고기 생산비, 특히 날씨가 추운 겨울철에는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중의 하나이다. 즉 사료가격 인하와 오일가격 인하는 생산원가를 하락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공급과잉으로 인한 원인보다는 세계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한 수요감소의 원인으로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닭고기 소비하락으로 이어진다면 의미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3. 불안정한 세계 경제흐름

그 동안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면서 모범생임을 자처하던 미국 경제가 금융회사들이 앞

다투어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담보대출) 관련 파생상품을 경쟁적으로 매입하다가 주택 시장 침체로 부실자산이 속출하면서 끝내 부실을 견디지 못하고 연쇄 붕괴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1997년 말 우리나라가 외환부족으로 IMF구제금융을 신청했을 당시의 모습과 같이 거대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던 미국의 힘없는 모습에 2009년도 세계 경제가 계속 암울하지 않을까 우려가 앞선다.

미국의 경제 위기가 너무 파괴적이어서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경제 또한 어두운 그늘에 놓여있음을 감안할 때 양계업도 미국 또는 세계의 경기흐름에 따라 민감한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환율변동이 그렇다.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으므로 환율은 양계산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환율에 따라 옥수수 가격이 변동되고, 닭고기 수입량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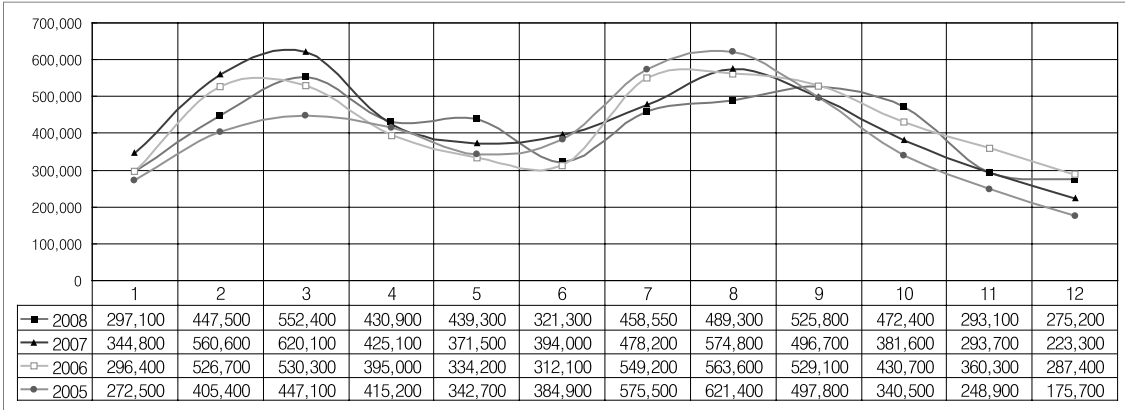
외국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고, 세계경제가 불황으로 치달으면 결국 자금유입과 수출이 부진해져서 우리나라는 소비자들의 소득 감소로 소비를 줄이는 현상을 보이게 됨에 따라 제때 수급 조절이 어려운 양계업은 경기가 위축되면 더욱더 큰 어려움에 놓이게 된다. 환율이 안정권으로 접어들고, 경기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양계업계도 경기 흐름에 따라 대처해야 하는 입장임을 깨닫게 하고 있다.

2009년도 육계산업 전망

2009년도 종계 · 부화업 전망

〈표 1〉 지난 4년간 종계분양 현황

(단위 : 수수)



4. 조류인플루엔자

우리나라 양계산업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2003년 이후 2005년을 제외하고 매년 발생해 커다란 피해를 주고 있다. 지난해에는 4월에 발생하여 최소 6,324억원의 경제적 손해를 입힌 것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추정하여 발표한 바 있다.

이중 판매 단계인 외식업체 및 소매업체의 피해액을 약 3,142억원, 소비감소 현상은 야외 가든식당과 외식업체에 더 심각하여 4월과 5월 매출이 각각 20%, 40% 가량 감소했고, 심한 경우에는 매출이 90%까지 줄어들어 매출 원가를 약 20% 정도로 가정할 때 2,700억원 이상 손해를 입힌 것으로 추산했다.

홍콩에서 지난해 12월 9일에 HPAI가 발생했다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겨울철에 접어든 우리나라는 철새가 지나다니는 길목에 위

치해 있어 더욱더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

5. 2009년도 생산 전망 통계

상기 〈표 1〉에서 보듯이 지난해의 육용종계 분양은 2007년도 대비 약 5% 정도 줄어든 500만(준용제외)수가 분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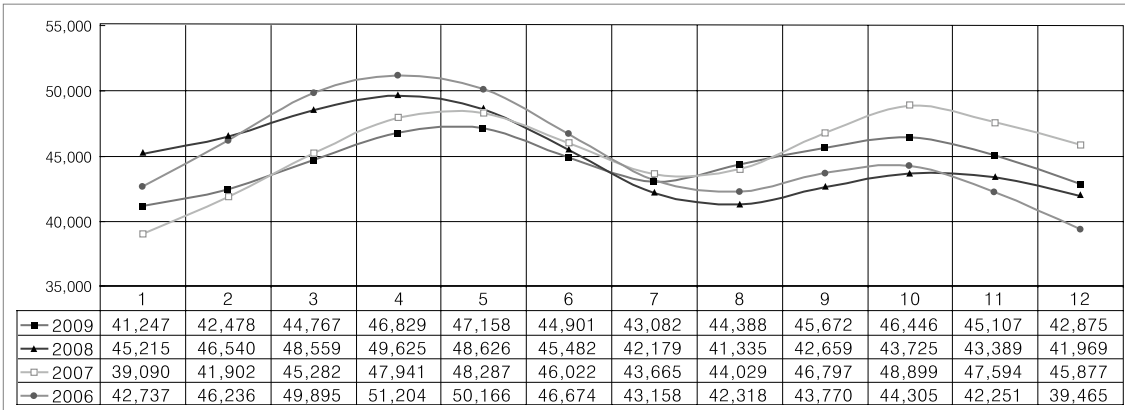
또한 분양수수가 상반기와 하반기 고르게 분포되어 육계병아리 생산수수는 연간 계절적인 생산은 있으나 과거에 비하여 상당히 평평해 짐을 볼 수 있다. 그것은 계열화 업체에서 생산을 연간 고르게 하기 위함임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상반기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하여 도태되었던 약 20만수를 제외할 경우 실제 분양되어 생존하는 육용종계는 500만수 이하일 것이다. 이는 많은 수수는 아닌 듯하지만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 닭고기 소비감소로

2009년도 중계·부화업 전망

〈표 2〉 실용계 병아리 생산잠재량 추정

(단위: 천수)



이어질 경우를 감안하면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6. 시장논리를 벗어나는 가격형성 가능성

지난해까지 지속된 약 90%가 넘는 계열화가 그 동안의 누적된 적자를 줄이기 위해 또는 흑자를 늘리기 위해 작년 하반기 시도했던 가격 인상처럼 시장논리를 벗어나 공급자가 인위적으로 인상하면 시장에서 일정부분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계열사의 숫자는 줄어들고 규모가 대형화될수록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러 해 동안 경험한 바에 따르면 양계업 경기는 항상 살아있는 생물처럼 움직인다. 공급과 수요에 따라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과 같은 등식이다. 가격이 높으면 생산량이 증가하고 낮으면 생산량이 줄어들었던 것을 향

상 경험해오고 있다. 가격은 생산량을 조절하며 생산량의 증감수단은 무수히 많다. 단지 짧거나 길거나 둘 중의 하나일 뿐이다.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것이 자본주의의 경제구조인 것이다. 일시적 또는 한시적으로는 조절이 가능하나 영원히 조절할 수 없음을 몇 년 전 원종계 쿼터제에서 우리는 경험했다.

우리 업계에 오랜 경험을 가진 원로 중의 한 분은 항상 필자에게 “남들이 다 죽는데 나만 죽지 않을 수는 없다. 단지 남들보다 하루라도 늦게 죽는다는 각오로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는 회사의 경영철학을 얘기하곤 한다. 참으로 귀담아 들어야 할 고견으로 생각된다.

통계의 수치나 전문가들의 의견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기축년 한 해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말고 남들보다 원가절감, 즉 생산성 향상으로 경쟁력을 갖추는 새해 설계가 수립되기를 기대한다. 